

한국 지역별 전통 혼례복에 대한 비교고찰

이효선* 박옥련

경성대학교 의상학과

A study in comparison of regional traditional wedding costumes in Korea

Hyo Sun Lee, Ok Ryun Park

Dept. of Clothing and Design, Kyung-sung Univ

1. 서론

혼례는 사람이 일생동안 치르는 의식인 ‘관혼상제’ 중 가장 중요한 통과례이다. 혼례복에 대한 연구로는 신분에 따른 궁중혼례복의 종류 형태 등 전반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민가의 혼례복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민가의 전통 혼례복을 경기도, 충청도,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 함흥도·평안도의 7도로 나누어 살펴보고, 지역의 문화적, 지리적 특성에 따라 변모되어진 민가 혼례복을 비교 고찰 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고찰은 지역적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신부의 혼례복을 중심으로, 특징, 형태, 색채, 장신구를 살펴보았다. 이론적 연구 고찰로는 혼례복에 대한 논문 및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았고 실증적 연구고찰로는 원삼유물사진, 1900~1960년의 실제혼례 사진 분석, 각 지역에서 전통혼례를 행한 8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를 병행하였다.

3. 연구내용

1) 경기도 지역의 혼례복 특징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원삼을 입으며, 경기북부의 일부지역에서는 원삼을 ‘활옷’이라 부른다. 원삼의 색상은 연두색이 대부분이며, 뒷길이보다 앞길이가 짧고 소매에는 넓은 간격으로 색동이 달려있다. 머리에는 다리를 사용하여 남자머리를 하고, 비녀를 꽂고 족두리를 쓴다.

2) 충청도 지역의 혼례복 원삼은 연두색, 초록색, 두록색 등의 녹색계열이 많으며 원삼의 안은 다홍색으로 한다. 깃은 홍색이나 자색으로 하였고 소매에는 4~5개의 색동을 넓게 이어 소매전체를

이루었다. 소매 끝에는 흰색 한삼을 달았으며 그 형태는 사대부가의 원삼과 유사하나 민가에서 금직이나 금박은 찍은 원삼은 없었다.

3) 강원도 지역의 혼례복은 치마, 저고리 위에 연두원삼을 입으며, 가슴에 붉은색 대대를 두른다. 소매는 넓은 색동으로 되어있으며, 소매 끝에는 한삼이 넓게 달려있다. 머리는 쪽을 지어 비녀를 꽂았으며 뒷땡기와 앞땡기를 두른다. 원삼을 구하지 못하는 산간지역에서는 숨저고리에 홍치마를 입고 족두리를 쓴다. 손에는 토수를 끼고 절수건을 두른다.

4) 전라도 지역의 혼례복 특징은 원삼의 색이 타 지역과는 다른 청색이 나타나는 점이다. 청색원삼은 대부분 사대부가의 혼례복으로 추측되며, 그 형태를 살펴보면 깃은 붉은색이고 소매는 색동으로 되어있어 화려한 색상이 돋보인다. 다른 지역에 비해 소매색동의 폭이 좁은 편이며, 소매 끝에는 흰색의 한삼이 달려 있다. 청색 홀 원삼의 길의 안단은 사규삼과 같은 형태의 홍색 단이 둘러져 있다.

5) 경상도 지역의 혼례복은 치마, 저고리를 입고 원삼이나 활옷을 입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역에 따라 곁옷인 원삼을 ‘활옷’이라 부르며, 그 형태는 녹색길에 소매전체를 넓은 색동으로 만들었다. 소매 끝에는 길게 한삼을 달고 깃은 붉은색의 맞깃형이 많으며 깃머리에 고름이 달려있다. 형편이 여의치 않아 원삼을 준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치마, 저고리 차림을 하거나 그 위에 치마감으로 원삼을 흉내 내어 두르기도 하였다. 두식으로는 남자머리를 꾸미고 족두리나 화관을 쓰는데, 원삼을 입지 않아도 족두리나 화관은 꼭 착용한다.

6) 제주도 지역의 혼례복은 타 지역과 달리 장옷을 입고 혼례를 치른다. 착장형태를 살펴보면, 치마 저고리를 입고 열린 색상의 장옷을 입은 뒤 짙은 색상의 곁 장옷을 머리에 두르거나 어깨에

걸친다. 치마는 남치마를 아래에 입고, 20~30cm 짧은 홍치마를 위에 입는 겹치마의 형태이다. 걸장옷의 색상은 녹색이나 두록색이 많고 깃은 자주색이나 홍색으로 하며 소매 끝에는 거들지가 달려있다.

7) 함흥도·평안도 지역은 혼례 시 차림은 타 지역에 비해 매우 이색적이다. 개성지방에서는 걸길에 붉은색 선 장식이 있는 연두원삼을 입으며,

두식으로는 꽃으로 장식한 큰머리를 엮는다. 평양 지역에서는 치마, 저고리에 털등거리를 착용하며 두식으로는 남자머리에 칠보비녀를 꽂고 고이땡기와 도투락땡기를 드린다. 함흥지역의 원삼은 타 지역에 비해 길의 색상이 열으며, 소매에는 홍, 황, 청의 색동이 있고 소매 끝에는 한삼이 달려있다.

4. 결과 및 고찰

각 지역의 문화적 특징과 혼례복의 특징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역		지역별 문화적 특징	지역별 혼례복의 특징
북부	함흥, 평안도	추운기후, 국경지역, 전쟁문화	붉은 선이 있는 연두원삼, 털등거리, 고이땡기, 도투락땡기
중부	경기도	왕실문화와 서민문화의 공존	연두원삼, 소매의 넓은색동, 큰남자머리, 족두리, 앞·뒤땡기
	충청도	양반문화의 표상, 삼남의 축	녹색계열의 원삼, 4~5개의 소매전체색동, 소매끝 한삼
	강원도	불교적 성향이 짙은 변방	연두원삼, 붉은색대대, 넓은색동, 솜저고리, 토수, 절수건
남부	전라도	수도와의 원격성, 풍유문화	청색원삼에, 붉은깃, 폭이좁은 소매색동, 족두리, 앞·뒤땡기
	경상도	낙동강을 기점으로 한 부락문화	연두원삼, 넓은색동소매, 안동지역의 나삼, 남자머리, 족두리
제주	제주도	삼다삼무의 섬문화, 민간신앙	겹치마, 저고리, 입는 장옷, 걸장옷(장옷의2중형태), 이영머리

위의 고찰을 살펴보면 지리적, 문화적성향이 유사한 지역으로 혼례복의 공통점이 나타나는데, 북부지역에는 털등거리와 화려한머리장식, 중부지역에는 녹원삼과 넓은색동소매, 남부지역에는 청원삼과 나삼, 제주지역에는 장옷을 입는 특징이 나타난다.

5. 결론

본 연구에서 살펴본 지역적 특성에 따른 혼례복의 특징은

첫째, 한국의 북부지역인 함흥, 평안 지역의 혼례복은 타 지역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며, 추운 기후적 환경으로 인하여 혼례복에도 털 등거리가 착용되었고 원삼역시 겹으로 만든 모본단원삼을 착용하였다.

둘째, 한국의 중부지역인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의 혼례복은 형태적으로 상당히 유사함을 보인다. 녹색, 연두, 두록색 원삼을 사용하며, 소매는 넓은 색동으로 구성되어지고 소매 끝에는 한삼이 달려 있다.

셋째, 한국의 남부지역인 전라도 일부지역에서는 붉은 깃이 달린 청색원삼이 전해지며, 경상도 일부지역에서는 치마, 저고리 감을 어깨에 X자로 두르는 ‘나삼’을 착용하였다. 이는 형편이 어려운 집에서 원삼을 준비하지 못하여 원삼 대신으로 착용한 모습이다.

다섯째, 제주도는 섬 문화 지역으로 내륙지방과 다른 혼례복의 특징이 나타난다. 겹치마, 저고리 위에 장옷을 입고 위에 다시 장옷을 둘러 입는다. 장옷의 색상으로는 연두장옷이 많고 붉은색 고름에 소매 끝에 거들지가 달려있다.

참 고 문 헌

[1] 고부자(1989), 우리나라 혼례복의 민속학적 연구, 한국복식제 7호, pp83~120
 [2] 김정자(2000), 20세기중엽 충청지역의 혼례복과 혼례풍속에 관한 민속학적 연구, 복식학회 제50권3호, pp.110~114
 [3] 정복남(2000), 서부경남지방의 전통혼례에 관한 민속학적 연구, 복식문화연구 제8권6호, pp.90
 [4] 고부자(1978), 제주도혼속, 국제대학논문집 제6집, pp.327
 [5] 박성실(1998), 북한지방의 전통복식“북한지방의 전통복식 개화이후~해방전후”, 서울:현암사
 [6] 경기민속지, “경기의생활개관편”, 경기도박물관, pp.16